

[팔복교회]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 딤후 6:17-1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남로6번길 74 ☎ 032) 865-4611

담임목사 : 이덕형

■ 2021년 팔복교회 추석 가정예배 순서 ■

사회: 가족중

한가위

낙락하고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님들의
가정에도 늘 한가위처럼 풍성함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묵상기도.....다 같이

신앙고백.....사도신경.....다 같이

찬 송.....559장.....다 같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 도.....가 족 중

성경봉독.....여호수아 24:14-24 (구 357쪽).....인 도 자

말 씬.....신앙의 가풍.....인도자(읽기)

각 가정마다 가풍(家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풍은 알게 모르게 세상 풍조(風潮)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가족 분위기가 형성되곤 합니다. 혹 우리 가정 안으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세상바람이 불고 있진 않은지 살펴봅시다. 신앙인의 가정에는 신앙의 가풍이 흘러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 어떤 신앙의 가풍이 불어야 할까요?

1. 신앙의 결단이 있는 가풍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놓고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를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15)”고 말하며, 너희 가정들도 나와 같은 신앙의 결단을 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부처님께도 기도하면 복을 두 배로 받지 않느냐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마6:24). 신앙생활이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는 결단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여전히 머뭇머뭇하고 있다면, 우리 가정은 아직 신앙생활을 시작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2.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가풍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선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런 다짐을 담대히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어떻게 광야를 지나왔는지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왔고,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으며, 구름 기둥과 불기둥 아래 그 거친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지난 40년의 세월 가운데 날마다 내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들은 그 힘든 여정을 마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앙인의 가정 역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각 가정마다 그 처지와 상황은 저마다 다를지언정,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동일했으며 또 풍성했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 가정은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3.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풍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하나는, 신앙의 외양과 겉치레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들은 절기마다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철저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신앙전통은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까지 여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말1:6)”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어느 듯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전수하고, 전수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각 가정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해줘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배우는 믿음은, 부모님의 잔소리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신앙의 뒷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 흐르는 신앙의 가풍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추석을 맞아 우리 가정에 신앙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하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풍이 흐르고 있는지를 삼가 돌아보는 시간이 됩시다.

가족을 위한 기도.....다 같이

찬 송.....찬송430장.....다 같이

1. 주와 같이 걸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2.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3.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 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4. 옛 선지자 예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 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기도문.....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